

年 35% ... 대부업 뺏치는 저축은행 고금리

모아·스타 등 고객 절반 이상이 연 30~35% 신용등급 낮은 취약계층 '울며 겨자먹기' 이용 고객 상당수 신용도 따른 차등 금리 적용 못받아

카드사용 결제 비용으로 고민하던 김모씨(49)는 지난해 8월 TV 광고를 보다가 쉽고 빠르게 돈을 빌려준다는 한 저축은행의 대출공고를 봤다. 정씨는 대부업체가 운영하는 한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창구 직원이 연 29.9%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했지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해 값을 생각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3개월 만에 대출을 연체했고 금리는 34.9%까지 높아졌다.

상당수 저축은행이 연 35%에 가까운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저축은행 가계신용 대출자들은 여전히 30%대 이자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서

민의 부채 탕감과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 탈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업체 수준에 맞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그야말로 요지부동이다.

8일 저축은행중앙회의 가계신용대출 금리대별 취급비중 현황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의 직전 3개월 동안 연 30~35%대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가계 신용대출 고객은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스타(84.2%), 스마트(80.9%), 현대(75.9%), 아주(62.2%), 고려(57.7%), HK(54.9%) 등도 전체 고객의 절반을 넘었다. 연 25~30%대 금리구간의 경우 대한(100%), 세림(99.6%), 키움(99.9%), OK(99.0%)와 웰컴(98.1%), 친애(81.9%), 청주(79.1%), 공평(71.7%) 등의 순으로 고금리 가계신용대출 비중

이 높았다.

이처럼 고금리를 부담하는 고객 대부분은 학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대학생,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힘든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금리의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저축은행의 획일적 금리산정 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을 받는 고객 상당수가 자신의 신용도 따른 차등적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연 10~20% 초반대의 신용대출 금리를 늘리도록 유도해왔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재 영업 중인 전국 80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출영업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33% 수준"이라며 "개인신용 평가를 통해 대출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고객에게는 낮은 금리로 취급하도록 지도했다"

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연 OK·웰컴저축은행 등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에 대해서 대출금리 산정, 대부업체 축소 등 인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러시엔캐시·웰컴론에서 평균 연 38% 금리를 적용받은 대부업체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갈아타면서 연 29.9%를 적용받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8%포인트 가량 손해를 보고 대출을 전환한 것으로, 금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비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들은 현재 대부업체에 따라서 최고금리 상한인 연 34.9%까지 금리를 적용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계열 저축은행의 인수조건으로 최고 금리를 연 29.9%로 제한했다.

그는 "현재 이용 고객들이 신용도가 낮아보니 높은 대출금리로 운영되고 있지만 획일적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신용평가 등을 통해 산출한 합리적인 금리를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금통위 회의·국제유가 대내·외 변동성 많아 외국인 적극 매수 힘들듯

국내주식시장은 ECB(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 발표 이후 반등에 성공하였으나 국제유가 및 대외변수 흐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면서 코스피지수는 지난달 1950선을 회복한 후 2주째 10포인트 안팎의 움직임을 보이는 박스피를 연출했다.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00선을 돌파하면서 강세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대외변수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유동성이나 정부 정책 등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확실한 시장이 지속할 경우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국면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여전히 글로벌 주식시장의 걸림돌은 국제유가와 유로존의 변동성이다. 최근 국제유가 추이는 주요국가의 경제성장률이나 통화정책 이슈보다도 주목받고 있다.

국제유가는 45달러까지 급락한 후 바닥권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난주 서부텍스스산 원유(WTI)는 전일보다 1.21달러(2.4%)오른 배럴당 51.69달러로 7.2%(주간상승률)를 기록하면서 마감했다.

이는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속하면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미국의 해외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급개선이 일어나 유가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보기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한편 유로존에서 최대 변수는 그리스에 대한 불안감이다. 12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4개년 경제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ECB는 그리스 신정부와의 구제금융에 관한 새로운 협상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며 그리스 국제 대출담보 허용 중단을 발표했다.

또한 그리스 정부가 재협상이 불발될 경우 그리스에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S&P(스탠다드&푸어스)는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종전 'B'에서 '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번 주 투자전략으로는 국내 기준금리 향방을 결정할 2월 금통위 가 예정되어 있고 대외변수에 대한 우려감으로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기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국의 유동성 확장 정책 및 각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경기민감주와 중국 수출관련 소비업종, 정부정책 관련 테마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급등으로 인한 단기 부담을 고려해 향후 실적을 포함한 선별적인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비교해 보니

우리은행 3.51% 가장 비싸고 기업은행 3.17%로 가장 저렴

농협은행 3.4%로 두번째로 비싸

2%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출시를 앞두고 '대출 갈아타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형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은행 중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 3.51%에 달했다.

시중은행 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낮은 기업은행이 연 3.17%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0.34%포인트나 높은 금리 수준이다.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도 우리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금리가 연 3.84%에 달했다.

2억원을 연 3.84%의 금리에 대출받았을 때 한해 내는 이자는 768만원에 달하지만, 연 2.8%에 대출받았을 때는 560만원에 불과하므로 대출을 갈아타는 고객은 한해 200만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은행권은 다음 달 연 2.8~2.9%의 장기 분할상환방식 대출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형 은행 중 우리은행에 이어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3.4%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분 51.04%를 보유한 정부 소유 은행이며 농협은행은 정부 지원을

받는 농협중앙회 소속이지만, 두 은행 모두 '수익성 강화'를 지상목표로 내세우면서 대출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3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높았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농협은행 금리가 가장 비쌌다. 이어 12월에도 우리은행의 대출금리가 가장 높았다.

중소형 은행 중에서는 수협은행의 12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75%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은행(연 3.44%), 제주은행(연 3.41%) 등 금리 경쟁이 덜 치열한 지방은행 대출금리도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연 2%대 후반의 저렴한 대출금리로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각 은행 간에 고객 유치에 위한 열띤 '금리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특판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종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소 높아졌지만, 새해 들어 특판 판매를 다시 시작해 금리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혀 치열한 금리 경쟁을 예고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2%대 장기 분할상환대출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고르다면 이자 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출금리 차이가 0.3%포인트 이상이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5년 이상 유지할 자신이 있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설 차례상 차리기
지난 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직원들이 설 차례상 차리기 시연을 하고 있다. <aT 제공>

설 차례상,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10만원 덜 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올해 설 차례상 차리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조금 오를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4인 가족 기준 26개 품목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는 21만원,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31만원이 들었다고 8일 밝혔다.

설 선물세트의 경우, 어휘량이 줄어든 굴비는 지난해보다 값이 21%, 사육두수가 줄어든 한우는

7% 넘게 올랐다. 반면 곱감 세트 가격은 18% 넘게 떨어졌고, 잣도 3% 이상 하락했다.

차례상 비용이 증가한 만큼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차례상 비용을 줄이는 노하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과일류는 오는 11일, 축산물은 11일부터 설 나흘 전까지가 저렴하다.

aT는 설 차례상 구입비용과 선물세트 가격정보를 오는 12일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www.kamis.co.kr)를 통해 한 차례 더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신
<NH투자증권
수원지점 부장>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

<p>고전방</p> <p>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희중 ☎062)224-4869</p>	<p>토담</p> <p>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p> <p>대표 김광수 ☎062)954-1333</p>	<p>아트타운갤러리</p> <p>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아트타운갤러리 전시대관 접수합니다.</p> <p>관장 정 인 ☎062)232-7141 010-5608-1878</p>	<p>놀부부대찌개문화당점</p> <p>동구 광산동 56-1 (변지유익상실원) 부대찌개, 찌개, 찌개구이</p> <p>대표 최은진 ☎062)222-9290</p>	<p>시골집</p> <p>동구 금동 15-2 (구시청에서 병무청쪽) 생선집, 오리로스, 생선매운탕, 회무침</p> <p>대표 조공숙 ☎062)227-45659</p>	<p>능이버섯백숙문화전당점</p> <p>동구 대의동 67번지 전일빌딩뒤 능이버섯백숙, 삼계탕전문</p> <p>☎062)223-1500</p>
<p>무등공인중개사</p> <p>북구 문흥동 938-4 주공1차2차프란체아파트건너편 아파트, 주택, 상가건물, 분양권 매매대전전문</p> <p>대표 권덕우 ☎010-9222-3339</p>	<p>무지개문화센터</p> <p>동구 게임동 서방사거리 이마트 코너 중독별 댄스스포츠 및 공예 수강 모집. 밸리댄스, 리본공예, 훌패션, 노래교실 등</p> <p>대표 오성자 ☎062)529-1188</p>	<p>아워홈테크</p> <p>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제휴점)이마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문 핑크대 불박이장</p> <p>대표 김창두 ☎010-6635-7224</p>	<p>송하한정식</p> <p>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한정식, 백반전문</p> <p>대표 이미지 ☎062)225-9278</p>	<p>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p> <p>북구 두암동 561-5홀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해,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p> <p>원장 이성호 ☎010-8278-0030</p>	<p>광주척추신체교정원</p> <p>계림동 마사회 건너편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통,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시지관절, 손발저림증상, 전신경락</p> <p>원장 박재남 ☎010-8827-7799</p>
<p>장충동왕족발보쌈</p> <p>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족발 소 중, 대 보쌈김치 신속한 배달 카드결제 가능</p> <p>☎1588-3300</p>	<p>박당화랑</p> <p>동구 금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김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당화랑</p> <p>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골든전당포</p> <p>북구 우산동 187-8번지 말바우시장 축산농협 건너편 귀금속 전당 고금시계 전당</p> <p>대표 김춘복 ☎011-624-9200</p>	<p>신신예술의집</p> <p>동구 금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광주화랑</p> <p>동구 금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p> <p>대표 박준환 ☎062)232-4784</p>
<p>다나베움</p> <p>동구 남동 169-4 (충장로1가입구인숙촌원) 호남최고 맞춤정장 결혼예복전문</p> <p>대표 김도경 ☎062)224-4262</p>	<p>그린이용원</p> <p>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p> <p>대표 성숙희 ☎010-3225-2735</p>	<p>토산철학원</p> <p>북구 두암동 예련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열 ☎010-9655-7765</p>			